

삼성노조 사태와 화이트 이그젼션



한용수의
동작구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사태는 극적인 타격으로 일단락됐으나, 이번 사태가 남긴 사회적 파장과 과제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수억대 성과급이 화두였으나 본질은 우리 노동정책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있다는 점이다.

노조가 문제 삼은 건 초과이익에 대한 보상이었으나, 갑갑이 평가와 보상 기준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이 더 컸다. 사측 역시 파업 장기화를 감수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막판 합의에 나선 배경으로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이탈 우려를 꼽는다. AI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이 사활을 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길어지면 우수 인재 확보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다.

과거 제조업은 '시간의 산업'이었다.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근속연수와 집단 생산성이 핵심 가치였다. 그러나 지금의 첨단 반도체 산업은 다르다. HBM과 차세대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경쟁은 소수 천재급 연구 인력의 역량이 좌우한다. 특정 엔지니어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수조 원 규모 사

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구조다. 글로벌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근무시간보다 결과와 책임을 중시하는 성과 중심으로 움직인다. 미국 등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화이트 이그젼션(고소득 전문직 근무시간 적용 제외)'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한국의 노동 제도는 여전히 과거 제조업 시대의 '시간 중심' 틀에 갇혀 있다.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극복해 온 경험에 있는 한국 사회는 여전히 노동시간이 중요하다. 그러나 글로벌 첨단 산업의 냉혹한 현실도 외면할 수는 없다. 미국, 대만, 중국을 상대로 한 속도 경쟁에서 기술 개발 시기를 놓치면 도태뿐이다. 이제 인재 확보와 유연한 연구 환경은 그 자체로 국가 경쟁력이 됐다.

실제 현장의 인재 유출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파격적인 고액 연봉으로, 미국과 대만 기업들은 높은 연구 자율성과 성과 중심의 보상을 내세워 한국의 핵심 인력들을 유혹한다.

위기의식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산업계는 반도체 R&D 인력에 한해 근무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의 부활을 우려했다. 여당과 야당 역시 첨단 인력의 특수성에 공감하면서도 노동계

의 우려를 고려해 사회적 합의와 안전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결국 여야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근로시간 특례 조항은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고, 이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구호를 넘어,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나설 때다. 미국식 제도를 무조건 이식하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한국형 화이트 이그젼션'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첨단산업의 일부 고소득 전문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근로 자율성을 주되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다.

삼성 노조 사태가 보여준 교훈도 명확하다. 자율성과 성과 중심 체계는 투명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작동한다. 우선 성과 평가와 보상 기준의 전면적인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초과 성과에 대한 확실하고 파격적인 보상 체계, 무제한 노동을 막기 위한 휴식권 및 건강권 보호 장치 제도화를 담아야 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찬반논쟁의 단순한 중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반도체특별법에서 매듭짓지 못한 과제를 다시 식탁 위로 올려야 한다. 국가 첨단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세종=hys@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7일 (음 5월 3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60년생 서남쪽이 길방입니다. 72년생 유망한 일을 모색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84년생 긍정적인 사고로 소원을 바라는 것이 유익합니다.



49년생 동업은 길하다고 보겠습니다. 61년생 남의 언쟁에 끼어드는 것을 삼가하세요. 73년생 의외의 돈이 들어와 살림이 풀려나겠습니다. 85년생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년생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되면서 원만하게 풀려 나갑니다. 62년생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74년생 더욱 큰일에 몰두하세요. 86년생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51년생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63년생 하늘이 복을 내립니다. 75년생 주변 사람들의 칭송이 대단합니다. 87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52년생 남쪽은 좋지 않으니 여행지 선택을 잘하세요. 64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76년생 어려울 때일수록 불의를 멀리하도록 하세요. 88년생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53년생 뜻밖의 반가운 재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65년생 이곳저곳에서 작은 이익이 생깁니다. 77년생 평소보다 건강을 조심하세요. 89년생 마음이 한동안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54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은 친구를 만날 것입니다. 66년생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겠습니다. 78년생 금전상으로 약간의 손실이 있겠습니다. 90년생 동남방에 귀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5년생 매사에 노력하고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67년생 인내심과 끈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79년생 어느 곳으로 가든지 좋습니다. 91년생 꾸준한 노력으로 이겨내어야 합니다.



56년생 여행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8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80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92년생 능력을 점검하고 자중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57년생 대체로 원만합니다. 69년생 여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81년생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93년생 안에서 찾으려 말고 밖으로 나가세요.



58년생 간절히 빌어도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0년생 정신적으로 충분한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82년생 이동 중 교통사고를 조심하세요. 94년생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세요.



59년생 꾸준한 체력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71년생 개업이나 전업은 아직 좋지 않습니다. 83년생 부모님에게 따뜻한 안부전화를 하세요. 95년생 좋은 기회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복지, 기업만큼 소비자 의식도 바뀌어야



김상회의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지속 가능성과 동물복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태 위 현실은 여전히 비좁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달걀의 상당수는 A4용지 한 장 크기(0.05㎡)의 배터리 케이지(공장형 사육장)에서 나온다. 평생 날개 한번 펴지 못하는 철창 속 고통이 효율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되는 곳이 국내 사육 농가의 현실이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사육을 끊기 위해 먼저 움직인 건 풀무원이다. 지난 2018년, 브랜드 달걀 시장의 80%를 점유하던 이 기업은 '2028년까지 전 제품 케이지 프리(Cage Free)'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리더의 움직임은 곧 시장의 변화로 이어졌다. 2022년 4.4%에 불과했던 국내 동물복지란 점유율이 2024

년 13.8%로 2년 만에 3배 이상 급성장한 것이다. '어떻게 키웠는가'를 묻는 소비자의 눈높이가 시장의 표준을 바꾸기 시작한 셈이다.

글로벌 동물보호 네트워크(OWA)와 시민 사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다음 주자인 CJ제일제당으로 향하고 있다. 국내를 넘어 아시아 식품 시장을 리드하는 거물이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이 연간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달걀은 약 6억 개로 추산된다. 이 거대한 물량이 동물복지란으로 전환될 때 당장 200만 마리의 암탉이 좁은 철창을 벗어나는 직접적인 구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당위성만으로 시장을 바꿀 수는 없다. 기업의 결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지불 의사'다. 동물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배터리 케이지를 벗어나 평사 사육으로 전환하는 순간, 농가는 사육 마릿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게다가 평사에

서 낳은 계란을 일일이 사람 손으로 줍는 고된 노동력이 추가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계란값과 닭고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싼값의 혜택을 누려온 소비자가 동물복지 향상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기꺼이 감내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선언도, 농가의 변화도 지속될 수 없다.

"동물복지가 좋으니 기업이 무조건 전량 바꾸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그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할 성숙한 소비 의식을 갖췄는지 먼저 자문해 보아야 하는 이유다.

생명 존중의 가치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소비자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할 준비가 되었을 때, 생산자 단체와 농가도 비로소 주도적인 변화에 나설 수 있다. 200만 암탉에게 날개를 펼칠 자유를 주는 일은 기업의 결단과 그 가치에 기꺼이 지갑을 열 준비가 된 소비자들의 책임 있는 연대가 맞물릴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tree6834@

김상회의 四季 차도살인, 빌리는 지혜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넘기 힘든 일을 마주할 때 그렇다. 생각대로 밀어붙이려니 깨질 게 뻔하고 피해서 돌아가려니 아예 길을 찾을 수 없다. 중국 병법 36계 중 하나인 차도살인(借刀殺人)은 이런 지경에 처했을 때 해법을 건넨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자기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외부의 힘을 활용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자기가 직접 싸우지 않고 상황과 환경, 주변의 힘을 이용해 목적을 이루는 데 있다. 직장 생활에서 차도살인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조직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다. 회사 업무나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처리하겠다고 고집부리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더구나 익숙하지도 않은 분야의 업무를 떠맡아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날이 잘 드는 칼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는 격이다. 사주팔자 중에서 자기 기운이 약한 신약한 사주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약한 자기 힘만으로 담비다가는 순식간에 기운을 소진할 수 있다. 이런 때 자기를 돕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힘을 상생으로 끌어다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 운세의 흐름이 좋지 않은 시기에는 차도살인 전략이 생존을 좌우한다. 운세가 하락할 때 직접 칼을 휘두르다가는 자칫하면 자기 발등을 찌기 쉽다. 운세도 힘이 없는데 에너지까지 잃으면 생존의 위기로 물리게 된다. 그런 시기에는 운세가 좋은 사람과 함께 하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면 방법은 냉혹한 전략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가 될 것이다. 방법은 사람과 삶을 들여다보는 지혜로 움이기도 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4			2		8		7
	3							9
9			6		3			
		9	3		7	4		
4								1
		3	7		2	6		
			1		6			5
7	1						6	
5		2		8				4

7			3	4		1	8	5
3				9		2		
8	4			3				
								8
9	3	7				4	6	1
2								
				1			2	6
			9	7				4
1	8	6		5	4			9

6	4	8	7	9	8	1
7	1	8	9	6	2	9
9	2	9	1	1	6	8
6	9	2	7	1	8	1
1	1	9	6	8	9	7
2	1	7	9	8	6	9
7	9	8	1	9	8	1
9	6	1	8	9	7	1
1	8	8	6	2	9	1

6	1	8	7	9	8	1
7	1	8	9	6	2	9
9	2	9	1	1	6	8
6	9	1	9	7	8	1
1	9	7	8	1	9	8
8	1	9	2	6	7	1
2	6	9	1	8	1	9
1	7	2	9	6	8	1
9	8	1	6	7	8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3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3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